

아름다운 복음을 지킨 제자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후사-

사편8:1-9, 디모데후서1:13-14

정윤문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직장과 산업, 학업 현장, 가사의 현장에서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향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일날 온종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 최고의 성령충만과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과 영이 오히려 치유 받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주소소서. 증거 된 말씀이 담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어서, 현장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주소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처음에는 지지율이 70-80% 되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40%가 된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최목사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에 손가락 얹어서 바톤을 이어받게 되었는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요새 메시지가 엘리야와 엘리사였다. 갑절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메시지 디모데후서는 사도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 같은 책이다. 디모데의 마음이 느껴졌다. 또 하나님을 직접만난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위로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참사랑교회는 한 명도 빠짐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어제 태영아 수련회를 했다. 많은 교회가 모였는데, 누가 봐도 우리가 1등이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양보하고 2등 했다. 우리만 계속 1등하면 안 되니까.(웃음) 사회자도 그러더라. 항상 1등만 하는 참사랑교회라고 후대가 살아나면, 후대를 키우는 엄마, 조부모가 살아나면 우리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도 후대가 오직 예수 되어야 하고, 후대가 이 복음을 잘 간수하고 지키고 후대와 후대에게 전달해야지만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어른들은 연약하더라도 장학제도, 여러 가지 양성, 전문성으로 후대를 키우는 것에 기준을 삼으면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지킨 제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이것은 나도 다짐하는 부분이고 우리들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램턴들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말씀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스스로 만들었는데, 만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다. 아마 그런 모습은 예술가도 그럴 것이다. 본인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만든 것 맞아?' 그레까지 작품이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한다. 여러분이 해보고 깜짝 놀라게. 지금부터 성탄절 준비, 김장 준비도 해야 한다. 여러분이 먹어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맛있게 했을까 싶어야 한다. 작품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해라. 최목사님이 2년 전에 뮤지컬로 만들었을 때, 지금까지 잘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하셨다. 그런데 유지하는 게 힘들지 않은가. 그 때 그 때마다 새로운 응답을 얻게 될 줄을 믿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제 6일째 날 동물도 만드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다. 사진을 보면 강아지들이 너무 귀엽고 예쁘다. 그 강아지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 강아지를 만드신, 반려견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한다. 이제는 반려견 시대이다. 심방 갔는데 딸들이 강아지 3,4마리는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권사님이 말씀하신다. 사기는 자녀들이 사고, 돌보기는 어머니가 돌보고.(웃음)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자연과 함께, 동식물과 함께 살도록 만드셨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곳에 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더불어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 때 창1:27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만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존재로 창조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하려해주셨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믿기를 바란다. 천국에 가기 싫은 정도로, 어떤 분은 돈만 있으면 이 땅이 너무 좋다고 한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져. 어떤 분은 심지어 '천국가고 싶은 분은 손 들어보세요.'하면 다 드는데 '오늘 가실 분 손들어보세요.'하면 아무도 들지 않는다.(웃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 이처럼 우리가 쫓겨난 세상도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런데 왜 복음이 필요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부부의 축복, 가정의 축복인데 사탄이 틈타서 깨어놓지 않았는가. 가정 안에 복음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 우리가 실수함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정죄하지 않고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죄는, 실수는 우리가 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 당신이 지셨는데, 그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더라도, 현장에 간음하는 여자에게 돌로 쳐 죽이려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쳐라.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다섯이었다. 모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면서 따돌렸다.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복음을 알려주셨다. 어떻게 보면 참된 복음을 깨달은 것이다. 주님 앞에 모두 용서를 받고 모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은 일단 달란트를 빚었지만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네 하면서 목살 잡는 영적인 자세,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아직 은혜가 덜 미친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예배가 필요하고, 매일같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길을 암송하고 되새기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어제 맛있는 음식을 먹었더라도 오세 배고프지 않은가.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런 것 같다. 은혜를 받아놓고, 또 다시 말씀 놓치고, 그러면 또 인본주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고 말씀을 불순종해서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서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 후로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엔 지옥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자의 후손만 된다. 이만희, 문선명은 다 아버지가 있다. 한마디를 몰라서 이단에 빠진다. 기존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예수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은혜가 되는 이야기, 귀에 단 이야기. 사람 많이 모으는 이야기는 교회보다 특강하는 곳에 가면 더 많다. 방탄소년단이 가면 더 많이 보인다. 야구장에 가면 더 많이 보인다. 즐거운 곳이 있으면 그렇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증거 하는 곳이 교회임을 믿기를 바란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이 오직 예수만 정확하게 알고 신천지를 살려내야 한다. 금방 죽는다. 이만희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곧 죽을 것이다. 무너지면 큰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명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참 복음을 몰라서 모든 인생을 거기에 쏟아버리고 잃어버린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현장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는 것이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로마시대에서는 모든 것을 던지고 해야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현장에서 누리면서 빛을 발하는 시대에 여러분을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럴수록 오직 예수의 복음을 이해하고,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이들과까지도 살려낼 수 있고 복음이 약한 교회까지도 살려내는 여러분이 될 줄을 믿는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과 세상에 속아 잘못된 성공과 잘못된 아름다움을 추구하다가 정작 진정으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놓친다. 그러니까 들린 아름다움, 말할 것, 들린 것을 추구한다. 다른 성공을 추구한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은 사람은 최고의 성공자이다. 무엇이 성공인가. 대통령되면 다 국립 호텔에 가신다.(웃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에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구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하면 다 땅,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진리를 증거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사도바울이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과 영적으로 추악한 현장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 동안 생명 건 헌신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표가 온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경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후배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문제 속에 빠져있는지 현장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하고, 이 현장 속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이 분들을 건져내야 할 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사도바울이 이 현장의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적용해서 답을 얻어야 할 것인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1. 불신자 상태를 사도바울은 딤후3:1에 고통 하는 때라고 표현한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겉모습은 멀쩡해도 정말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가정, 마음, 육적, 심적으로. 표준과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데 말씀과 맞지 않으니까 방향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1) 딤후3:2의 말씀이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창세기3장 문제) 어떤 분이 성형을 하려고 하고 좋은 옷을 산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내 만족이라고 한다. 어제 대학청년이 모여서 어느 때 힘들고 답답하니 하나가 두 사람이 이야기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땀을 때라고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원하는 순간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웃음) 자녀도, 남편도 마찬가지이다. 내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다. 진정한 자기사랑은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줘야 한다. 신6:5,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나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을 것 같은가.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응답을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불신앙 영적 싸움이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메시지이다.

(2)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6장 문제) 우리는 말씀으로 답을 줘야 한다. 딤후6:10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의 기준이 돈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약간의 차이이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꼭 돈이 필요하다. 절대적이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바칠만한 가치는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돈은 우리의 맘, 노력, 피이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 내 생명과 피와 살을 헌신하는 것이 헌물이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을, 현장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한다. 우리에 주어진 일,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소중하게 하다면 명예와 돈은 따라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자랑하며'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교만하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영광을 부모님께, 선생님께 어른들께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3) 교만하며 (창세기3장 문제) 여호수아에 나온다. 원죄의 근본이 교만이라고, 잠 18:12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한다.

(4) 비방한다고 말한다. 딤후3:2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한다. 마7:1,비방하지 말라. 마7:3,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럴 때가 많다. 사실은 우리 안에 허물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비방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귀 기울여 누구의 이야기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성도님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내 뜻과 맞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더 귀한 뜻이 있다. 어떤 권사님이 남편과 갈등이 있는데 권사님께 말씀드렸다. '남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한다. 종교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하면 교회에 가는데 참사랑교회라면 '잘 갔다.' 그러지, 그 교회 가지 말고, 이단이라고 가지 말라고 하겠는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5) 골3:20, 부모를 거역하면 안 된다.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과 같아서이다. 감사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6) 살전5:18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정신문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다.

(7) 거룩하지 아니하며 (영적문제) 짐승들은 거룩할 필요가 없다. 램11: 45에 보

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 지어다.’

(8) **‘무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문제)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 약2:8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다. 세월이 과거와 다르게 사람들이 정이 없어진다. 무정하고 무자비해진다.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이다. 상대방에게 배려를 하지 못한다. 최고의 복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이다. 다락방 현장에서 말씀만 가르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가르치려고 하면 정말로 봐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다. 개인을 사랑하고 그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지 진정한 것이 보이지 않겠는가.

(9)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정신문제) 고모부가 계시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였다. 본인은 학교 선생님이고, 다 엘리트들이다. 그런데 30년 지났는데 남동생이 있다고 말한다. 인천에서 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있는지를 몰랐다. 결혼을 반대했다고 30년 동안 단절되어 살았다고 한다. 가족들 간에, 형제들 간에 원통함을 가지고 있다.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녹이기를 축원한다. 롬12:19,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말씀하게 된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굉장히 머리가 있고 모략이 있는 것 같은데 함정을 파는 사람은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그 방법을 쓴다. 그런데 본인이 빠진다. 우리는 머리가 좋지도 않고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시기를 축원한다.

(10) **잡28:10에 포함한다고 말한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하만이 그러지 않았는가. 자기가 함정을 팠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옆 사람이 박수치고 기뻐해줄 것 같은가. 그런 훌륭한 분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잘 될수록 함정을 파서 빠트리려고 한다. 그러나 굳이 파서는 안 된다. 그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빠지게 된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굉장히 머리가 있고 모략이 있는 것 같은데 함정을 파는 사람은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그 방법을 쓴다. 그런데 본인이 빠진다. 우리는 머리가 좋지도 않고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시기를 축원한다.

(11)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12) **사나우며.** 갈5:20, 온유해야 한다. 사나워서는 안 된다.

(13)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 빌1:10에 보면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얼마나 지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악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당하고, 손해 보는 것이 낫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으니가.

(14) **배신하며.** 우리는 가릇 유다처럼 배신해서는 안 되겠다.

(15) **조급하며.** 약5:8,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나님은 참으라는 말을 많이 하신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자신이라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참아야 하는 일이 참 많다. 참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다. 큰일을 할수록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6) **자만하며.** 빌2:3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 ‘각각 자기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베틀은 일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는가. 모든 성도들이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겸허한 자세로 임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능력이 가정마다,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될 줄을 믿기를 바란다. 그렇게 누룩과 같이 전도하는 것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전도되는 것이 아니다.

(17) **패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롬8:13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연약하다. 자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충만해야지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힘, 말씀이 필요하다. 마약중독자에서 돌아온 분에게 ‘정말 끊어졌요?’ 하니가 그 분이 말한다. ‘그러니까 24시간 말씀 들죠.’ 한다. 마약이 생각하는 것을 ‘머리에 꽃혔다고’ 이야기한다. 그 생각이 심기면 참지 못하는 것이다. 마약환자에게 ‘돈은 어떻게 생각하니?’ 하니가 나쁜 것이라고 한다. 만원, 10만원만 넘으면 마약생각이 난다고 공동적으로 이야기한다. 목사님 나 도 돈을 좋아하는데 그 분들은 이미 뛰어 넘었다.(웃음) 물론 돈을 잘 사용하면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18)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에게 돌아서라.** 딤후4:8에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바꿔줘야 하는가. 여러분이 살 빼고, 운동하는 것은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건강관리 하면 유익하다. 그러나 경건은 법사가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에 있느니라.’ 왜 재미도 없는데 교회에 예배가 느냐 이야기하는데 중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세상 쪽으로 가면 결국은 공허하고 허무하다.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결국엔 방향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하고 싶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 전도, 선교 속에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다. 내일 팔라완에 가지 만 제일 행복한 여행이 선교여행인 것 같다. 아무런 비싼 패키지도 그런 다양한 것을 볼 수 없다. 나중에 불신자도 선교갔으면 데려갔으면 좋겠다. 카자흐스탄에 가 봤더니, 선교사님이 해발 2천 미터 스키장에서 내려오는데 1시간 걸린다고 한다. 여기에 선교캠프로 램네프트를 오고,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선교현장을 보고, 선교사님만이 썬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는 줄을 믿기를 바란다. 경건 안에 있는 축복, 능력이다.

사도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복음과 우리자신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도자의 삶을 알려주었다. 내용으로 보면 40가지 나오는데 다 말할 수 없으니가 중요한 핵심,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지,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였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예수님으로 끝났으니가 그냥 복음만 누리 고 살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을 알려주었다. 그것이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이다. 보석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 보관함에 보자기로 써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기사가 나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복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주변, 인간관계도 갖춰야 한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복음, 그리스도,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며 욕을 먹는다. 이 복음을 아름답게 지켜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작품으로 다듬어야 한다. 복음을 천 번 묵상하고, 20번 암송하고, 만 번 묵상하는 것은 다르다. 히로시마 참사랑교회에 심선교사님이 축구선수를 소개시켜줬다. 만나자마자 그 분에게 말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축구선수니까 알겠지만, 공을 똑같은 품으로 천 번, 만 번, 십만 번 하는 것이 다르지 않은가. 복음도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한번, 백번, 만 번 들을 때마다 다 다르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오늘 전도자의 삶이다.

2.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다.

(1) **딤후1:8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과정이, 언약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다. 성경에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은 아름답게 말하지만, 노예생활, 속국생활, 포로생활, 이 과정에는 고통이 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뛰어넘게 되면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란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은 고통을 많이 했지만 후대는 복을 받았다.

(2) **딤후2:1,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복음의 은혜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언약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다. 주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지킬 수 없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딤후2:2,내게 들은 바를,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어제 대학청년부 램네프트들과 포럼하는데 현장에서 전도하는 포럼을 들었는데, 충성된 제자구나. 미래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부탁할 수 있는 충성된 자 되시기를 축원 드린다. 5절에서 보면 법대로 경기하라. 복음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가능하면 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좋다.

(4) **딤후3:14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항상 겸손한 자세로 복음, 말씀, 삶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됐을 때 움직이면 된다.

(5) **딤후3:15-17까지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말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딤후4:2에 말한다.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들이 전도캠프를 할 때 성도들한테 말한다. ‘전도 안 해도 돼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다르다. 목회자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려고 엄히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목사님에게 복음을 위탁받을 정도로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전도 안 해? 전도 해야지. 다락방 해야지. 제자 맞아?’ 목사님이 편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원한다. 그러면서 딤후4:2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러한 제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누구를 만나도 5분 이상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이번 주에 강단에서 은혜 받은 일을 포럼하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그리고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당면, 필면,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24시, 25시, 영원한 것을 두고 묵상하면서 겸손하게 도전하는 것이다.

결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비밀은 무엇인가. 램네프트 7명,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과 롬16장 제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

(1) **나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 요셉이 노예로, 포로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다.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이면계약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2)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대한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천년의 응답을 넘어,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류목사님이 말씀을 하신다. 하루에 30분씩 지구를 돌면서 기도하신다고 한다. 나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한다. 전 세계 237개국, 7천 개의 언어, 도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새 생각을 세계화로 하는 것이다.

(3) **꿈이다.** 언약을 가진 그들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꿈이 구체적으로 있었다. 로마복음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천제자의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로컬과 파라,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을 만드는 교회가 될 줄을 믿는다. 이번에 태영아 1등 했으면 다 1등한 것이다. 이 아이들이 크면 모든 부분에서 탑이 될 것 아닌가. 지난번에 광주 집회에 가서 류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초등학교생, 중학생들이 모여서 바이올린을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딸이 바이올린 전공을 해서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다.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모아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꿈을 실현시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4) **이미지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실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5) **실천이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사명,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참사랑성도들이 이 응답 받을 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디모데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남긴 위대한, 아름다운 복음을 정말로 지키고 이 복음을 가지고 237개국을 살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린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꿈과 비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세상에 속지 말고, 창3장, 6장, 11장에 속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으로 시대 살리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